

보령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운영, 발로 뛰는 의정활동 눈길

- 주요 사업장 13개소 현장 점검, 조례안 동의안 등 28건 의결
- 조장현 의원 대표발의 건의문 채택, 최은순 의원 5분 발언
- 박상모 의장, “시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령 위한 발걸음”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11일부터 8일간 제254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에 걸쳐 주요 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점검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장현 의원은 발언을 통해 ‘보건의료 복지 강화를 위한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서비스사업 확대’와 ‘석면 피해기록관 건립’을 건의하고, ‘교통비, 간병비 지원항목 신설 및 석면 환경보건센터 지정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 구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 조장현 의원 건의



▲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 촉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24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등 27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주요 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첫날은 ‘고대도 해양 문화 체험관’등 섬 지역 3개소를, 둘째 날은 ‘충청수영오감센터’ 등 북부지역 5개소를, 마지막 날에는 ‘성주우회도로(국도40호) 건설 현장’ 등 남부지역 5개소

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사업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주문했으며,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업 추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 주요 사업장 방문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은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 의원은 ‘제로플라스틱 실천 정책 시급’을 주제로 발언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과 함께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맞물려 갈 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제로플라스틱 실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3일간 진행한 사업장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 최은순 의원



▲ 박상모 의장

박상모 의장은 “이번 회기는 주요 사업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가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건의한 보완사항을 잘 검토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255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운영될 계획이다.